

좌담 : 새 시대 새 불자상 정립

믿음 실천하는 보살로 거듭나자

출가자든 재가자든,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본사에 충실하면 그가 곧 참다운 불자다. 이러한 불자의 길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특히 현대 사회는 보다 다양한 방식의 보리 추구하고 회향을 요구하고 있다. 불교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유로 비로 거기에 있다. 이에 <현대불교>는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새로운 시대의 불자상 정립'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을 마련했다. <편집자>

참석자

- 퇴휴 스님**
법장사 주지
 - 박광서 교수**
서강대 물리학과 불교비로세우기 재가연대 상임대표
 - 이문희 씨**
서울 정토사 신도
- 사회: 유재학 취재2부장
일시: 2000년 5월 2일
장소: 본사 불교사랑방

사회: 새 시대는 우리에게 과거와는 전혀 다른 불자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사회 참여나 봉사나 같은, 불법의 사회적 실천이 바로 그러한 요구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면 사회와 동떨어진 종교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이런 전제하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새시대 불자상을 찾아 보도록 하겠다. 먼저 출가자는 재가자에게, 재가자는 출가자에게 '이런 모습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평소의 생각을 털어놓았으면 좋겠다.

퇴휴: 출가자는 오욕락으로 표현되는 모든 세속적 가치 추구를 포기하고 더 큰 가치를 찾아나선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출가자들에게 대한 재가 불자들은 요구는 아주 세속적이다. 심지어는 보시금 등을 통해 스님을 소유물화하려 든다. 이런 행위는 수행자에게 서비스 맨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보시금을 많이 냈을 때 응분의 대우를 바라는 것도 한 예다. 이것이 매우 안타깝다.

박광서: 그러나 사회인들의 눈에 비친 스님들의 모습은 오히려 오욕락을 추구하는 듯하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스님들은 수행과 교화에 전념하고, 재가불자는 그러한 여건과 풍토를 만들어 가는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 같다.

이문희: 스님들이 외형적 불사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 재가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뒷전이다. 사회를 제도하는 데도 힘을 써 주셨으면 한다. 무의탁 노인이나 교도소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에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퇴휴: 일부 스님들이 오욕락에 빠져버린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인데, 그것이 전

체의 모습으로 비취진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사찰에서도 물질적 토대가 필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도 이상의 물질 추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 사실 승가의 물질 추구는 대부분 불자들의 기복에 빠진 신행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쉽게 말해서 '내 복만 빌어 달라'고 요구하는 불자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다. 이 점에 대해서도 반성적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퇴휴: 기복 그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실의 삶에서 행복 추구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기복은, 부처님을 맹목적으로 믿고 '돈 많이 벌게 해 달라.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 달라'는 등 불보살의 가피력을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실천의 결과로서의 복이어야 한다. 헌신, 희생, 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살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종교가 되고 만다. 이제는 은둔과 기복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광서: 전적으로 동감이다. 타인과 사회를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복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이 절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 자신의 공덕을 회향할 때나도 같이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만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할 수 없다'는 유마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

사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사회적 회향으로 넘어갔다. 어떻게 해야 할 것으로 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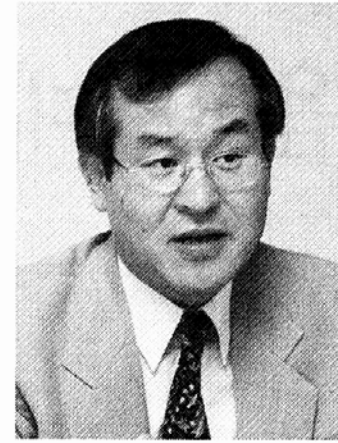
이문희: 나는 봉사를 기도로 삼는다. 그래서 나는, 나의 손질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간다. 또 이러한 실천(行)은 기도와 똑같다고 생각한다.

퇴휴: 봉사 활동도 매우 중요한 보살행이다. 그러나 대개의 불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보살행은 생활 속에 있다. 환경 보호를 예로 들어 보자. 헌 옷을 재활용하는 것도 보살행이고, 물을 아껴 쓰는 것도 보살행이다. 이제는 불자들도 내 한몸 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시민 사회운동과 같은 공동체의 관심사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문희: 그런데 봉사 활동의 현장에서 보면, 사찰에 가서 불자들에게 노력 봉사를 권하면 주지스님들은 마치 신도를 배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스님



퇴휴 스님



박광서 교수



이문희 씨

절의 주인은 모든 불자 은둔-기복 이미지 벗자

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 승가의 의식 전환과 함께 신도들의 각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새삼스럽긴 하지만 교육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광서: 재가 교육이 있어 왔는지 궁금하다. 승가 교육 또한 최근 반세기 동안 상당히 부실했다. 승가 교육이 이러한데, 재가자 교육은 말할 것도 없었다. 천주교의 경우, 일정 수준의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불교는 이런 게 없다. 스님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철저한 신도 교육이어야 한다. 훈련되지 않은 재가로는 새로운 불자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퇴휴: 승가교육이 체계화된 것은 10여년 안팎이다. 승가 교육에서 강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데,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은 부족하다. 스님은 자기수행뿐 아니라 교화자의 역할도 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스님의 자질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도 교육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 신도 교육은 불교가 바로 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 이와 함께 사찰 운영의 재가 참여와 재정 공개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 없이 불법의 사회적 회향을 거론한다는 것은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다.

승·재가 역할분담 절실 재가 교육프로 체계화

박광서: 스님들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집중돼 있다. 큰 사찰에서도 사찰, 신도, 재산 관리, 재정 운용 등은 스님들의 몫이다. 그래서 살림은 재가와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어느 스님은 "재정만큼은 절대로 줄 수 없어" 하고 말하는데, 이것은 '주고 받을'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기득권의 포기나 축소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시대를 이끌 종교로서의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다.

퇴휴: 문제의 핵심은 사찰이 사유화되는 것이다. 주지가 되면 경제권, 인사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여긴다. 주지를 맡으면 모든 권리를 갖고, 주지를 놓으면 모든 권리를 잃는 식의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재정 투명화하는 것도 그렇다. 실제로 조계종 교구 본사의 경우도 신도회가 유명 무실하다.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찰은 '운영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일 년에 한두 번 짚어 오는 신도가 태만한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이를 간파하고 재가의 참여를 말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자각된 신도, 자각된 스님이 되어 합리적인 운영과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박광서: 모든 사찰들이 사찰 재정 공개

불사 치중 포교 등한시 승려 노후대책 세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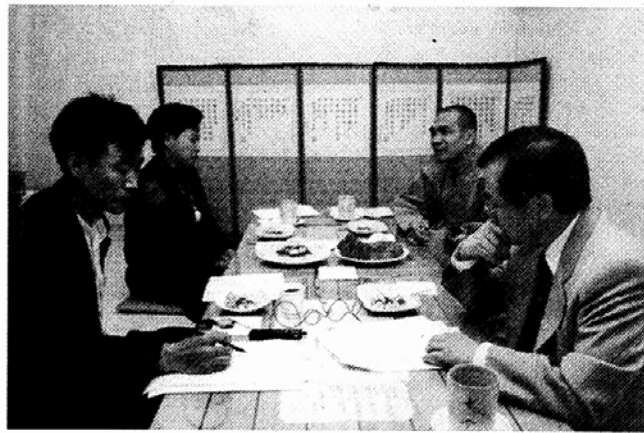
를 시행하기는 힘들 것이다. 먼저 관할 정수 사찰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단에서도 이를 점차적으로 유도해야 것으로 본다. 이 문제는 개별 사찰의 재가 아니라 종단의 정책 문제이다. 그리고 재가 또한 주인 정신을 갖고 불교라는 그림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각해야 한다.

이문희: 신도들이 모이면 삼보정재 합부로 쓰는 스님들을 흥분한다. 한편으로 종단 차원에서 스님들의 노후 대책을 마련해 줘야 재정 공개 문제도 해결 될 것 같다.

퇴휴: 스님들의 노후 문제가 해결되면 삼보정재 유실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부분이 없어질 것이다. 재정 공개에 자신감이 없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종단도 건실해지고 불교도 발전해 나갈 것이다.

사회: 정리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오늘 우리의 논의는 정당과 같은 '새로운 불자상'을 도출해 내는 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불자상이 어떻게 될지를 어렵잖이나마 그려본 것이다.

정리: 김원우 기자
(www.buddhapia.com)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佛紀 2544年 (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불국토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웅종

중정 영산 일공

원로원장 황법운

승정원장 송보인

고시위원장 최법신

중의회 의장

중의회부의장

포교원장

문혁원장

중앙비구니회회장

중정시사실장

조성관

김인관

조성건

김선진

박대월

임채관

총무원장

총무부장

총시회부장

재무부장

교육부장

총무국장

규정국장

총사업국장

최법륜

장체승

임보광

박대월

이체원

이체인

박체성

강체도

인천총무원장

충청남북총무원장

강원총무원장

경북총무원장

경남총무원장

전라남북총무원장

장체승

김체의

류무송

손지관

최천호

이정광